

어서 와! 번역은 처음이지?

영어? 일본어? 우리말? 번역?

책 번역을 생각하고 계신다고요?

그렇다면 **외국어**와 **전문 지식**은 기본! 하지만 정작 가장 어렵고 당혹스러운 장벽은 **우리말**일 겁니다.
우리는 매일 말하며 글도 쓰지만, 마지막으로 우리말을 공부한 기억은 언제인가요? 평소 무엇이 바른 우리말인지 고민하며 글을 쓰나요? 누군가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주던가요?

네, 우리는 우리말을 잘 모릅니다!

이제부터 저와 함께 우리말 실력을 키워주는 평소 습관, 편집자와의 첫 만남에서 출간까지의 과정, 번역을 도와줄 유용한 팁을 살펴보시죠. 여러분의 첫 번역을 즐겁고 소중한 경험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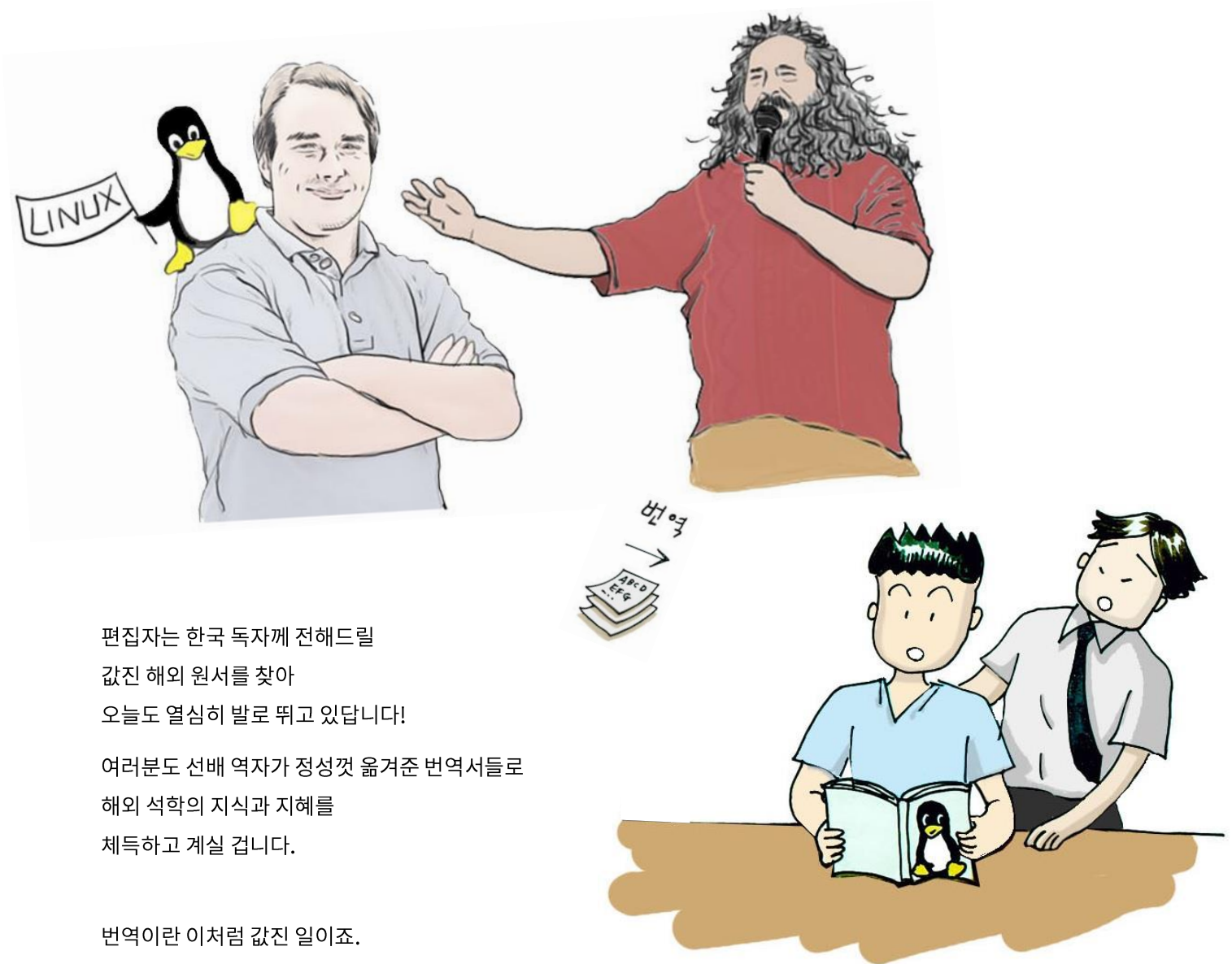
영어? 일본어? 우리말? 번역?	1
하나_ 번역과 나	3
번역이란	3
나에게 번역이란	4
둘_ 난 준비된 번역가	5
좋아! 가는 거야!	5
맛배기 팁	5
번역에 도움되는 평소 습관	6
셋_ 그래, 이 날을 기다렸어 (편집자와 함께)	7
첫 만남	7
샘플 번역	8
번역 진행	9
역자 날 낚으시고 편집자 날 기르시니	10
넷_ 나란 인간, 책 낸 인간	11
부록_ 번역 요령	12
가. 번역형 인간으로	12
나. 번역가, 철학을 품다	14
다. 우리말의 특성을 알자	17
라. 흔한 번역체	19
마. 그 밖의 요령	21

하나_ 번역과 나

과연 번역이란 무엇이고, 번역이 내 삶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번역이란

번역이란, 특히 전문서 번역이란 ‘외국글로 된 지식과 지혜를 우리글로 바꾸어 다른 사람과 나누는 일’입니다.



편집자는 한국 독자에게 전해드릴
값진 해외 원서를 찾아
오늘도 열심히 발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선배 역자가 정성껏 옮겨준 번역서들로
해외 석학의 지식과 지혜를
체득하고 계실 겁니다.

번역이란 이처럼 값진 일이죠.

자! 멋지게 들리지만, 너무 추상적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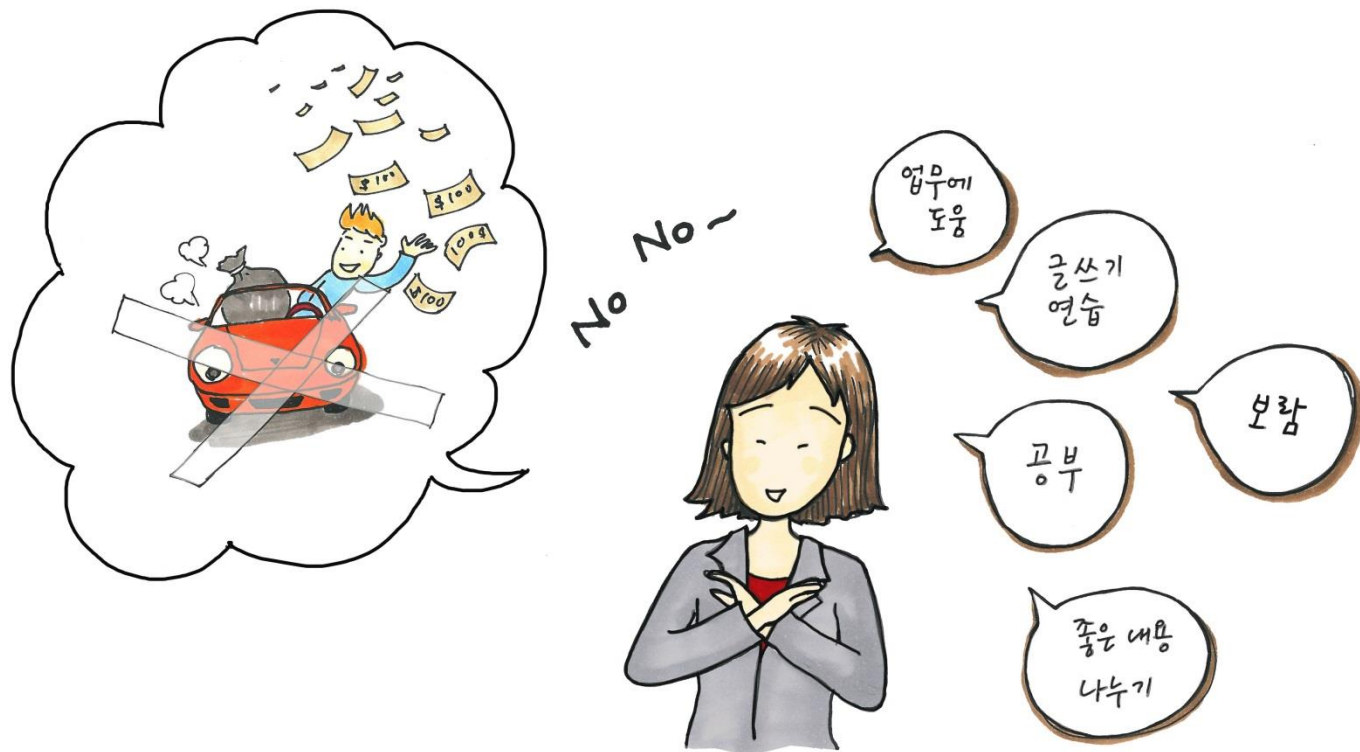
아무래도 직접 번역에 뛰어들려면 더 현실적인 목표가 필요할 겁니다.

나에게 번역이란

“내 이름을 걸고 전문 지식과 노력을 쏟아 붓는데 차 한 대는 뽑아야지!”

이런 생각이시면 실망하셔도 책임 못 집니다! ^^

물론 출판사에서 사례는 합시다만, 생각하시는 만큼 많진 않을 겁니다. 전업 번역가가 많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신 다음과 같은 자신만의 목표와 의미를 찾다면
경험해볼 만한 멋진 도전이 될 겁니다.

- 업무에 큰 도움이 되겠군!
- 평소 궁금했는데, 제대로 공부해보자.
- 딱 동료들이 알았으면 하는 내용이잖아!
- 이 주제로 강연하는 내 모습, 상상만으로도 멋진걸!
- 전문가가 옆에서 거들어주니 글쓰기 연습으론 이만한 게 없겠지?
- 장차 집필서를 내기에 앞서 좋은 경험이 될 거야.
- ...

우리글 배우기

좋은 출판사와 편집자를 만나면 여러분의 글쓰기 솜씨를 한층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국어 문법만 공부하기보다 다른 나라 말을 우리 말로 옮기다 보면, 각 언어의 특성을 알게 되어 잘못된 습관도 고치고 우리 글을 더 맛깔나게 쓸 수 있게 됩니다.

둘_ 난 준비된 번역가

“지금껏 내가 읽은 원서가 몇 권인데!!” “우리말? 장난해? 난 네이티브라고!!”

이렇듯 쉽게 생각하고 덤벼다가는 자칫 자신에게 실망하고 낙담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샘플 번역 단계에서 눈물을 머금고 발걸음을 돌리는 분도 제법 많답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현 수준을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과 실력을 키워주는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 가는 거야!

재미있게 읽었던 최신 블로그 글을 우리말로 번역해보세요. 그리고 번역한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거나 관심 있어 할 동료에게 공유하세요.

참 쉽죠? ^^

...

하지만 아마 많은 분이 멘붕을 경험할 겁니다.

맛배기 팁

내용 이해는 기본!

하지만 자연스러운 문장이 써지지 않는다면?

원문은 잠시 잊고

이해한 것을 자신의 말로 설명해보세요.

우리말 재주가 있는 분이라면

이 정도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어도 하루 두 시간씩은

번역에 집중할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요령은

부록을 참고하세요~



번역에 도움되는 평소 습관

하루아침에 좋은 글이 써지진 않겠죠? 번역이라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탄탄한 글쓰기 능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원서로 읽는 것만 못한 책이 태어납니다. 다들 몇 번은 경험해보셨죠? ^^ 하지만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글쓰기 실력을 눈부시게 끌어 올려줄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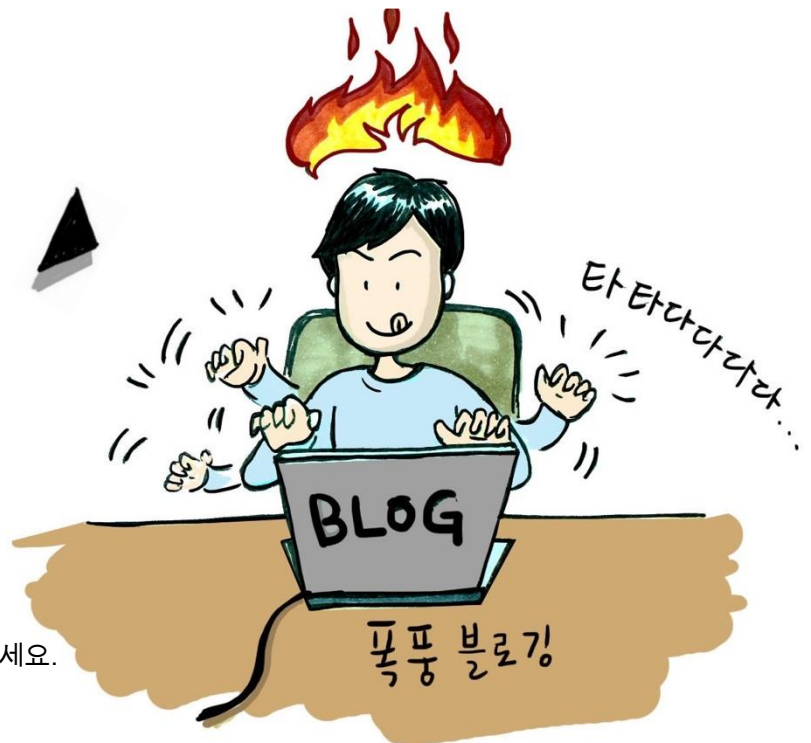


많이 읽고 많이 쓰자!

읽을거리는 많지만, 단언컨대 책만큼 삶에 보탬이 되는 건 없다는 데 제 돈 전부와 손목을 걸 것까진 없잖습니까?

꾸준한 독서는 **상식**과 **표현력**을 높여주어 익숙하지 않은 분야라도 오역을 줄이고 맛깔나는 우리말로 옮길 수 있게 됩니다.

틈틈이 읽고, 생각하고, 짤막한 글이라도 매일 조금씩 적다 보면 어느덧 멋진 문장가가 되어 있을 겁니다.



맞춤법 검사

더불어 평소 자신의 글을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인사하시죠~ <http://speller.cs.pusan.ac.kr/>

검사할 글이 없다고요?

아니죠! 당장 업무 메일 오류부터 잡아보면 됩니다!!

셋_ 그래, 이 날을 기다렸어 (편집자와 함께)

이쯤이면 솔솔 편집자가 등장할 타이밍입니다.

이번 절에서는 편집자와의 만남부터 책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간략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첫 만남

출판사 기획/편집자는 틈틈이 여러 행사에 참여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와 블로그를 기웃거립니다.

숨겨진 원석을 찾아 빛을 발할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죠. ^^

자신의 성취를 나누길 좋아하고, 흠어진 조각 정보를 모아 하나의 온전한 작품으로 빚어낼 줄 아는 당신이라면 분명 편집자의 레이더망에 포착될 것입니다. 때론 지인의 추천이나 역자 콘테스트로 첫 인연을 맺기도 하고, 뜻이 있는 분은 스스로 출판사의 문을 두드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첫 만남이 아무리 극적이고 화기애애했다 해도
정식 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할 관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샘플 번역!**

지식이 차고 넘치고 구수한 입담을 자랑하는 달변가라 해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지식의 양이나 말재주가
글쓰기와 정비례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집필과 번역도 또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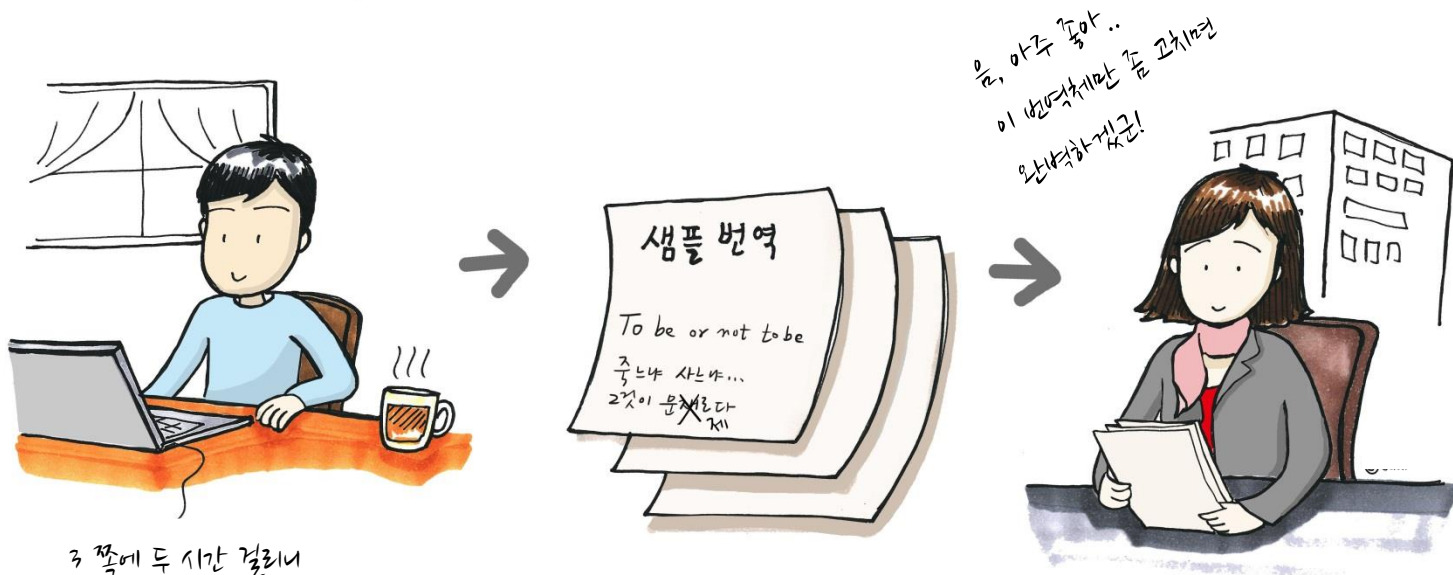
샘플 번역

샘플 번역은 ‘내 번역서’를 갖기 위한 첫 관문입니다.

편집자는 번역을 의뢰할 원서 일부를 샘플로 번역해 달라고 요청할 겁니다. 심지어 저명한 저자이거나 다른 출판사와 일한 경험이 많더라도 말이죠. 독자에게 좋은 책을 선사하기 위한 편집자로서의 최소한의 의무이니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번역에 도움되는 평소 습관을 실천하는 분이라면 어렵지 않게 통과할 겁니다.

가능한 한 빨리, 하지만 정성을 다해 글을 가꿔서 보내주세요~



3 쪽에 두 시간 걸리네

360 쪽 x (2 / 3) = 240

하루 두 시간씩 네 달이 걸리네!

샘플 번역의 목적 원고 품질 평가만은 아닙니다.

역자는 대략적인 번역 일정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편집자가 샘플에 드러난 잘못된 습관이나 유용한 팁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샘플이 기대보다 못하거나 출판사 편집 방향과 다르면 아쉽지만 함께할 수 없습니다.

명문대 나오고 유학까지 다녀오고도 첫 관문에서 주저앉는 분이 많으니, 살짝 긴장하셔도 좋습니다.

비법은 이미 알려드렸습니다.

습관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번역 진행

샘플 번역이 만족스러우면 정식으로 역자와 담당 편집자가 되어 본격 진행하게 됩니다.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다 보면 몇 달 후 자기 이름의 책이 품에 안겨있을 겁니다. 핵심 과정은 샘플, 계약, 번역과 교정, 최종검토, 색인(인덱스), 출간 순입니다.

참 쉽죠!



몇 가지 부탁 말씀드립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일정**과 **품질**이겠죠.

이 둘만 잘 지켜주시면 편집자가 조금도 귀찮게 하지 않습니다.

(일정) 원고는 완성되는 대로 **1 개 장 Chapter** 씩 주시고, 늦어지면 미리 언질 부탁드립니다.

(품질) 원고를 주기 전에 **맞춤법 검사** 꼭! 수행하시고, 편집자 **피드백**에 **성실히** 대응해 주시면 됩니다.

편집자는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걷는 동반자입니다.

평가자가 아니니 부담 없이 모든 걸 공유하고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역자 날 낚으시고 편집자 날 기르시니

번역... 많은 분이 가볍게 솜씨 뽐내러 오셨다가 코피 쏟고 가시죠.

- 최소 몇 달간 시간을 쪼개고 주말을 희생해서 이 일에 매진해야 합니다.
- 원서 좀 읽었다고 번역이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
- 사전에서 찾은 단어를 단순 나열해서는 올바른 뜻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
-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장도 꼭 나타냅니다.



자칫 생활 리듬이 깨지면 집중도 안 되고 고생은 고생대로..

효율적으로 번역하고 싶다면

하루하루 일정한 시간을 투자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10 시 취침, 4 시 기상, 출근 전 2 시간 번역은 어떨까요?

주말엔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차 한 잔 곁들여 번역해보세요.

역자가 힘들면 편집자도 힘들어집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ㅠㅠ

역자의 컨디션은

원고에 그대로 나타나기 마련이죠.

잘 풀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차 한 잔 함께 마시며,

이런저런 힘든 얘기도 나누고,

심기일전해서 다시 시작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번역이 이해가
안되면 어쩌나...
일정은 지났는데
왜, 뭐했는지
반박에
안답나요?
왜죠?



넷_ 나란 인간, 책 난 인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내 책이 있는 사람 vs. 없는 사람

드디어 여러분은 내 책이 있는 부류에 입문했습니다!!

내 책이 나오는 순간, 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눈 앞에 펼쳐지진 않습니다만……

해방감과 성취감은 기본이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커집니다.

여러분을 바라보는 주변 시선에도 부러움과 신뢰가 더해졌겠죠.

강연 요청이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스스로도 적극 홍보하고 활동해서 **대외 인지도와 신뢰를 쌓을 기회**로 활용하세요.

그러다 보면 좋은 곳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기도…!



랜드마크 건~설!

이제 잠시 차 한잔의 여유와 셀프 선물로 행복을 만끽한 후
새로운 목표를 찾아 떠나세요.

부록_ 번역 요령

어떤 분야의 책이냐에 따라 그리고 출판사와 편집자가 지향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번역 요령이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사항이라도 중요도가 달라지고 특정 분야만을 위한 팁도 있겠지요. 이 문서에는 IT 전문서 역자를 위한 요령을 담았습니다.

가. 번역형 인간으로

규칙적인 시간 내기

번역을 좋은 품질로 빠르게 해치우려면 규칙적으로 하루 2 시간 정도는 조용히 번역에 집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장시간 몰입할 환경이 못 되면 매끄러운 글이 써지지 않을 겁니다. 일찍 일어나는 편이라면 출근 전 새벽에, 아니면 퇴근 후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차 한 잔과 함께 몰입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평일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평일에는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빠르게 초벌 번역하고, 주말엔 하루 정도 시간을 내어 차분히 다듬는 방법도 좋습니다.

이런 생활을 거의 일정하게 몇 달을 지속할 수 있어야 처음 계획한 시일에 원고를 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 쉽진 않겠죠? 하지만 후에 되돌아보면 분명 보람된 시간으로 기억될 겁니다.

용어표 만들기

일관된 결과를 위해서는 간단한 용어표를 만들어 쓰는 게 좋습니다. 몇 달이 걸리는 작업이니 어느 순간부터 같은 단어를 이전과 다르게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용어를 같은 우리말로 옮기는 경우도 더러 있고요. 특히 공동 번역일 경우에는 반드시 용어표를 만들어 공유하고 논의하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용어표 포맷은 다음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원문	번역문	후보 or 제안	비고(선택 근거)
1 장			
terms and conditions	약관	약관 및 조건	..
user space	사용자 공간		위키 백과
..
2 장			
..

도구 활용하기

좋은 소식은 우리 주변에는 번역에 도움을 주는 도구와 자료가 아주 많다는 것이고, 나쁜 소식은 어느 하나 완벽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중 유용한 도구를 몇 개 소개합니다.

맞춤법 검사기_ 한글은 쉽지만, 우리말은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예외도 많고, 표준도 자주 바뀝니다. 여러분이 학생 때 배운 표현이 지금은 틀린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맞춤법 검사기가 필요합니다.

워드 프로세서의 맞춤법 검사기도 좋지만, (주)나라인포테크와 부산대학교가 함께 만든 '한국어 맞춤법/문법 검사기(<http://speller.cs.pusan.ac.kr/>)'가 참 걸작입니다. 다음 그림처럼 자세한 도움말을 함께 제공해 주니 평소 모르고 사용하던 우리말 지식이 차곡차곡 쌓여갈 것입니다.

원 문	[총 121자]	교 정 표
<p>한글(문자)은 쉽지만 우리말은 어렵습니다. 한동안 현실과 너무 다르다며 지탄(?)을 받았던 자장면은 표준어로 허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최대값은 이제 잘못된 단어입니다. 사이시옷 규칙을 적용받아 최댓값이 옳은 표현입니다.</p>	<p>입력 내용</p> <p>대치어</p> <p>도움말</p> <p>관련학습 사이트</p> <p>오류보고</p>	<p>쉽지만 우리말은</p>
		<p>쉽지만, 우리말은</p>
		<p>대등하거나 종속적인 절이 이어질 때는 절과 절 사이에 반점을 씁니다. 반드시 쓰지 않아도 되지만, 반점을 쓰게 되면 절을 쉽게 구분할 수 있고, 뜻을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쉬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글을 읽기도 편합니다.</p>
		<p>없음</p>
		<p>대치어가 맞지 않으면 '보내기'를 눌러주세요. 가능하면 이유도 적어주세요.</p> <p><input type="button" value="보내기"/></p>
		<p>지탄(?)을 받았던</p>
		<p>손가락질(?)을 받았던</p>
		<p>행정분야 순화 권장 용어입니다. 따라서 되도록 쓰지 않되, 어쩔 수 없다면 쓸 수도 있습니다.</p>
		<p>순화용어</p>
		<p>대치어가 맞지 않으면 '보내기'를 눌러주세요. 가능하면 이유도 적어주세요.</p> <p><input type="button" value="보내기"/></p>
		<p>최대값은</p>
		<p>최댓값은</p>

한 번에 300어절씩 검사합니다.

용어집_ 앞서 설명한 바로 그 용어집입니다. 엑셀이나 구글 스프레드시트처럼 익숙한 도구를 사용하면 됩니다.

사전과 번역기_ 아무리 익숙한 분야라도 다른 사람이 쓴 책에 등장하는 모든 용어를 알고 있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쓰는 용어가 동종 업계의 다른 사람들이 흔히 쓰는 용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유학을 다녀왔거나 원서 위주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학생이나 젊은 친구들은 나 때와는 다른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저자가 자기 문화권에서 유행하는 신조어를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전이 필요한 이유는 명명백백합니다. 그럼 어떤 사전들이 있고 어떨 때 사용하면 가장 빛날까요?

- MS 언어 포탈_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회사인 MS 의 수많은 소프트웨어 제품, 그 대부분은 한글 버전도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MS 가 자사 제품과 도움말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알려줍니다. 눈이 번쩍번쩍뜨이죠? (<http://bit.ly/1dFa6R8>)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_ 네. 표준입니다. 대부분 출판사가 표준어 사용을 원칙으로 하지만, 종종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용어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http://stdweb2.korean.go.kr/>)
- Urban Dictionary_ 신조어가 많이 등록된 사이트입니다. 사전에도 없는 단어, 문맥상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표현을 발견하면 한 번 이용해 보세요. 너무 큰 기대는 실망을 안겨주지만, 그래도 제법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http://ko.urbandictionary.com/>)
- 구글/네이버 번역_ 영어는 포기하더라도, 일본어 번역이라면 큰 도움이 됩니다.
(구글: <https://translate.google.com/>, 네이버: <http://translate.naver.com/>)
- 한글라이즈_ 외래어의 우리 발음으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영어권 외의 사람 이름, 지명 등을 찾을 때 활용하세요. (<http://www.hangulize.org/>)

번역자를 위한 책_ 번역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거나 올바른 우리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꼭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단언컨대 웬만한 국어책이나 작문책보다 실생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번역의 탄생』 이희재 / 교양인 / 2009
- 『번역의 공격과 수비』 안정효 / 세경 / 2006
- 『번역자를 위한 우리말 공부』 이강룡 / 유유 / 2014
- 『일본어 번역 스킬』 강방화, 손정임 / 넥서스 JAPANESE / 2011
- 『번역, 이럴 땐 이렇게』 조원미 / 이다새(부키) / 2013
- 『안정효의 오역 사전』 안정효 / 열린책들 / 2013
- 『100 명 중 98 명이 틀리는 한글 맞춤법』 김남미 / 나무의철학 / 2013
- 『100 명 중 98 명이 틀리는 한글 맞춤법 2』 김남미 / 나무의철학 / 2015
- 『100 명 중 98 명이 헛갈리는 우리 말 우리 문장』 김남미 / 나무의철학 / 2014

이중 『번역의 탄생』이 다루는 내용은 뒤에 나올 ‘다. 우리말의 특성을 알자’ 절에서 살짝 맛보실 수 있습니다.

나. 번역가, 철학을 품다

직역 vs. 의역

“직역은 좀 딱딱하더라도 출발어(원어)의 독특한 구조와 표현을 살려주는 태도이고, 의역은 도착어(번역어)에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만들려는 태도입니다.”

- 『번역의 탄생』

“He works for me”와 “She doesn’t report to me”를 직역하면 “그는 나를 위해 일한다”와 “그녀는 나에게 보고하지 않는다”가 되겠지만, 의역하면 “그 친구는 내 부하야”와 “소피아는 내 부서가 아닌데”처럼 될 수 있습니다. 문맥에 따라 “결정은 내가 한다고”나 “내가 참견할 일은 아니지”로 옮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번역해야 하느냐? 논쟁이 많은 질문이지만, 제가 드리는 답은 의외로 쉽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책을 읽고 싶은가요?”

외국어 느낌이 물씬 풍기는 직역체 글이 좋은가요, 아니면 글 좀 쓴다는 한국인이 쓴 듯한 부드러운 글이 좋은가요? 대부분은 후자를 선호할 겁니다. 그래서 출판사도 이를 따라갑니다. 다만 신기술이 빠르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IT의 특성상 소설이나 수필 수준의 우아함을 고집하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맛깔나게 썼더라도 철 지난 지식을 담은 책이라면 독자가 외면할 테니까요.

IT 서적은 전달하려는 핵심이 ‘정보’와 ‘지식’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의 의역에는 관대한 편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여기서 ‘이 정도로 해달라’고 정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출판사의 정책과 담당 편집자의 욕심, 책의 성격과 예상 독자층, 출간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샘플 번역이나 번역 초기에 편집자와 많이 교류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독자와 소통하기

책을 자신의 학식과 고상함을 뽐내는 수단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독자와 소통하지 못하는 책은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아나운서나 감성을 자극하지 못하는 예능인과 같습니다. 어휘를 선택하고 문장을 다듬을 때는 항상 독자가 누구인지 생각하고 그들의 눈높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현장에서 많이 쓰는 용어가, 특별히 어색하지 않다면 되도록 우리말 단어가 좋습니다. 너무 함축하거나 길게 늘어 쓰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원서의 문장을 꼭 그대로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원문이 너무 길거나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나누고 재조립해서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바꿔주세요.

정확성 -> 가독성 -> 완결성

IT 서적의 생명은 역시 정확성입니다. 담긴 내용이 거짓되거나 논리에 맞지 않거나 예제 코드가 돌아가지 않으면 독자가 외면합니다. 번역자가 오역에 특히 주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원서의 내용도 곧이곧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저명한 저자라도 모든 걸 알 수는 없고, 아무리 꼼꼼한 편집자라도 모든 실수를 잡아낼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오류는 초벌번역보다는 검토 과정에서 발견하기 쉽습니다. 아무래도 여유가 생기니 시야도 넓어져서겠죠. 하지만 매번 원서를 일일이 대조해보지 않는다면 처음에 잘못 번역한 내용이 마지막까지 이어질 수 있겠지요. 가능하면 초벌번역 때 틀린 내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자신 없는 부분은 따로 표기해두세요.

다음은 틀리기 쉬운 부분과 틀린 부분을 쉽게 찾는 요령입니다.

- **숫자와 척도**_ 숫자는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면 오류를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부분의 총합이 98%라던가, 30m 가 27km 보다 멀다거나, 2 이상은 성공이고 2 이하는 실패라고 하는 등이 있겠네요.
- **논리 흐름**_ 조금 전에 한 설명이 결론을 뒷받침하지 못하거나 비약이 너무 심하거나 뜬금없는 이야기 튀어나온다면 원서와 대조해보세요. 이런 현상은 오역 때문일 가능성이 큼니다.
- **상식과 다른 설명**_ 제대로 번역한 듯하지만 내가 아는 상식과는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저자가 틀린 것 같다면 저자에게 확인을 받거나 담당 편집자에게 알려주세요.
- **중의적 표현**_ 하나의 문장이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문학 서적이라면 일부러 중의적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IT 서적에서는 확실히 피해야 합니다. 한참 전에 번역한 부분을 ‘다른 사람이 쓴 글이다’ 생각하고 읽다 보면 처음 의도와 다르게 읽히기도 합니다.
- **저자 사이트**_ 원서 출판사나 저자 자신이 따로 저자와 소통할 수 있는 사이트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원서의 독자가 찾아낸 오류와 저자와의 질의응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없다면 그다음은 독자가 온전히 책 내용에 빠져들게끔 가독성에 신경 쓸 차례입니다.

아무리 정확하게 표현했더라도 지나치게 어렵게 쓰여 있다면 독자는 이해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엉뚱하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세요.

- 문장이 한 번에 이해되지 않아 다시 읽어야 했다.
- 생소한 용어가 등장해서 인터넷을 찾아보니 이미 알던 용어를 독특하게 번역한 것이었다.
- 평소 쓰지 않는 어색한 문체가 많아 집중을 방해한다.
- 분명 같은 의미인데 특별한 기준 없이 여러 용어를 섞어 쓰고 있다.
- 격언, 비유, 유머를 원문을 잘 살려 번역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잘 와 닿지 않는다.
- 달러, 파운드, 피트, 마일 등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단위가 사용되어 독자가 감을 잡기 어렵다.

용어 선택 문제는 인터넷 검색과 커뮤니티를 통해, 용어 통일은 용어집을 만들면 쉽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좋은 우리말 문장에 대해서는 번역자를 위한 책과 인터넷 검색(‘번역체’ 혹은 ‘번역투’로 검색해보세요)

그리고 편집자 피드백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격언이나 단위처럼 문화권이 달라 생기는 문제는 상응하는 우리식 표현과 단위로 변환해주세요.

마지막은 완결성입니다. 저자는 보통 그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해서 설명을 생략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기 위해 책을 사 든 독자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죠. 혹은 저자가 속한 사회에서는 상식이지만 우리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예상 독자의 눈높이에서 아쉬운 부분은 찾아 역자주로 보완해주는 친절함을 베풀어주세요. 옮긴이의 목소리를 곁들일 수 있는 좋은 수단이기도 합니다.

다. 우리말의 특성을 알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외국어의 특성을 알고 우리말의 특성을 알면 원서의 뜻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옮기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이 절의 내용은 앞서 소개한 바 있는 『번역의 탄생』 일부를 짜깁기한 것입니다. 수많은 주옥같은 내용 중 우리말과 영어가 어떻게 다르기에 그대로 옮기면 어딘가 어색한지를 잘 보여주는 부분을 추렸습니다.

예문도 그대로 가져왔는데, 살짝 아쉬우니 시간 나면 IT 관련 글에서 적절한 예들을 찾아 대체하겠습니다.

주어는 어디 갔지?

우리말은 ‘나’를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I'm really hungry.

→ 배고파 죽겠다.

It's so cold.

→ 너무 춥네.

우리말은 한 문단에 주어 하나가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할 때가 많습니다.

총각은 사방을 돌아보았다. 그믐밤의 하늘은 그야말로 머루 속 같았다. (그는) 더듬더듬 숲을 헤치며 산자락을 내려갔다. 멀리 반딧불 같은 불빛 하나가 깜박거렸다. (그는) 반가웠다. (그는) 불빛이 흐르는 쪽으로 걸음을 재우쳤다.

우리말은 주어 자리에 주로 사람이나 동식물이 오지만, 영어는 삼라만상이 다 올 수 있습니다. 주어가 사물이나 관념이라면 주어를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어나 사람으로 바꿔주면 좋습니다.

His words shocked me.

→ 그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부사어)

The investment paid off handsomely.

→ 그 투자로 재미를 보았다. (부사어)

Even after seventy years of metropolitan-based life, the size and incoherence of London still astonished *me*.

→ 대도시에서 산 지 70년이 넘었지만 런던의 크기와 변화무쌍한 모습에 아직도 나는 깜짝깜짝 놀란다. (사람)

'그'와 '그녀'를 모르는 우리말

3 인칭을 나타내는 대명사는 원래 한국어에는 없었습니다. 구어에서는 아직도 ‘그’와 ‘그녀’는 거의 쓰이지 않지요. 영어에서는 명사가 먼저 나오고 그것을 대명사나 그에 준하는 다른 호칭으로 받아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영어와 우리말은 어순이 다르니까 번역을 하다 보면 순서가 꼬이는 경우가 곧잘 생깁니다.

요령은 간단합니다. 첫째, 지시 대상이 모호해질 것 같으면 대명사를 그 대명사가 지시하는 명사로 바꿔줍니다. 둘째, 문장 안에 없어도 우리말로 뜻이 통하는 불필요한 대명사는 과감히 빼줍니다.

They expressed their confidence that they could entrust their souls to God for whatever arrangements He might make for them after their deaths.

→ 그들은 죽은 다음에 어떤 대접을 받을지는 몰라도 하느님에게 영혼을 맡길 수 있다고 확신했다.

He told me he had been robbed by a highwayman who had taken all he had owned, leaving him just the lantern.

→ 사내는 강도한테 다 털리고 등잔불만 달랑 남았다고 했다.

수동태 길들이기

영어는 타동사를 좋아하여 수동태가 많습니다. 특히 객관적이라는 인상을 주어야 하는 과학 분야에서는 수동태 문장을 많이 써줍니다. 예를 들어 “They said that …” 같은 능동태보다는 “It is said that …” 같은 수동태가 더 객관적으로 보입니다. 번역할 땐 능동태로 바꿔주세요.

This fear can only be driven out by a strong awareness of the value of life.

→ 삶의 가치에 대한 확고한 자각만이 이런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다.

정적인 영어 vs. 동적인 우리말

영어는 명사가, 우리말은 동사가 발달했습니다. 우리말은 추상 명사가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오는 것을 꺼립니다. 그러니 명사를 동사로 바꿔주면 더 우리말다워집니다.

무분별한 개발은 자연 파괴를 낳는다

→ 무분별하게 개발하면 자연이 파괴된다.

보호를 요청했다

→ 보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사의 꼼꼼한 진찰은 환자의 빠른 치유를 가져왔다.

→ 의사가 꼼꼼히 돌봐준 덕분에 환자가 빨리 나왔다.

1581 년 그 나라는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다.

→ 1581 년 그 나라는 스페인에서 독립한다고 선언했다.

명사가 발달한 영어는 자연스럽게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도 발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말은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가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형용사는 한국어 부사로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A careful comparison of them will ...

→ 그것들을 자세히 비교하면 ... (no 그것들의 자세한 비교는 ...)

His father's sudden death forced him ...

→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 (no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

... was a beautiful evocation of traditional Korea.

→ ...는 한국의 전통을 아름답게 재현했다. (no ...는 한국 전통의 아름다운 재현이었다.)

라. 흔한 번역체

번역체와 우리말다운 글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혹은 번역체라는 사실은 알더라도 그리 어색하게 느끼지 못하기도 하죠.

잠시 딴 얘기...

우리가 번역체에 익숙한 데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글이 채 정립되기도 전에 수십 년이나 일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해방 후에도 6.25 등 가슴 아픈 사건들로 먹고살기 바빴습니다. 늦게나마 우리 말과 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지만, 당시 지식인 대부분이 일본어에 익숙했기 때문에 일본 자료가 많이 번역되어 들어오는 등 일본어의 잔재를 깨끗이 씻어내지 못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20~30 여 년 전부터 급격히 성장하기 시작한 IT 역시 새로운 정보의 상당 부분이 서양에서 발생해서 우리에게로 흘러들어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접하는 최신 기술 정보 대부분은 누군가가 번역해서 제공한 내용인 것이죠.

현실이 이렇더라도 우리말 수호자인 편집자들은 될 수 있으면 우리말다운 글을 지키기 위해 수정을 요청할 겁니다. 우리말다운 글을 배운다는 것은 다른 일로는 쉽게 얻을 수 없는 번역 과정의 부산물입니다.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즐겨주셨으면 하네요.

그런데 대표적인 번역체라 해도 그 전부를 나열하려면 너무 길어집니다. 더구나 사람마다 습관처럼 쓰는 번역체가 제각각이라 몇 개만 추리면 자신에게는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방법 하나 소개해봅니다.

1. 흔한 번역체 목록을 훑습니다.
2. 여기서 1~3 개 정도만 기억하고, 평소 글을 쓸 때 그 번역체를 쓰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3. 어느 정도 체화했다고 느껴지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마지막으로 흔한 번역체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소 자신이 자주 쓰는 표현이 보이거든 링크 걸어둔 위키를 찾아가 제세한 설명을 읽어보세요.

흔한 영어 번역체 (https://goo.gl/yL3sRe)	흔한 일어 번역체 (https://goo.gl/55QRcC)
대명사 남발 왈도체/직역 피동형 그, 그녀, 그것(he, she, it) ~에 대하여, ~에 관하여(about) ~에 위치하다(be located at/on/in) ~가 있었다(There is/was) ~을 가지다, ~을 가진(have, get) ~가 주어지다(be given) ~가 요구되다(be required of) ~으로부터(from) ~을 고려에 넣다(take ~ into account) ~하는 중이다(be -ing) ~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다(find oneself ~) ~로부터 자유롭다(free from) ~에 있어서(for ~, in ~ing) 영문법식 문장부호 사용 Yes 와 no 의 구분 You know Oh 강조를 위한 표현(believe me, if you ask me, I say) 가장 ~한 것들 중에 하나(one of the ~) 그럼에도 불구하고(in spite of, nevertheless, although, even though) ~의 그것(of ~, that/those of ~) ~는 없다(There is no such thing at too much ~) 지나친 수식어구 아무도 ~하지 않는다(nobody, nothing, nowhere) ~문장 사이의 표현을 그대로 번역 ~에 의하여(by) '~의' 남발(~ of ~)	피동형 심포 남용 조사 남용 오덕체 ~다(~だ) ~(해)버리다(しまう, じゃう, ちゃう) ~하지 않으면(~しないと, ~しなきゃ, ~しなくちゃ) 상냥하다(やさ(優)しい) ~까나(~かな) ~라는(~という), ~한다는(~するという) ~의(~の), ~에의(~への), ~에게서의(~からの) ~의 일(のこと) ~들(たち) 무려(なんと) 랄까, ~라고 할까(って, いうか) 조금은(少しは) 초(超) ~라고 생각해(~と思う) ~에 다름아니다(~に他ならない) ~에 틀림없다(~に違いない) ~에 있어서(~に於て) ~거나 하다(~たりする) ~(하)고 있다(-ている) 보다(より) 누구 씨 -파 / -계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다 (そんな事はどうでもいい) 대응(対応) 동(同)xx ~, 본(本)xx ~ 행해지다(行われる) ~에 관하여(-に 關して), ~에 대하여(-に 對して)

마. 그 밖의 요령

사전 검토자 활용

믿을 수 있는 친구와 동료에게 원고 검토를 부탁하는 것도 좋은 책을 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몇 가지 요령과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원고는 유출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세요.
- 검토자가 분야 전문가라면 용어는 적절한지, 내용에 오류는 없는지를 중심으로 봐달라고 부탁하세요.
- 책의 대상 독자에 해당한다면 쉽게 읽히는지, 흐름은 자연스러운지, 필요한 설명이 빠지지 않는지를 중심으로 봐달라고 부탁하세요.
- 초벌 원고보다는 자체 검토와 편집자 손을 한 차례 거친 원고를 건네주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초벌 원고는 오타자 같은 사소한 오류가 많아 읽는 흐름이 끊기고 큰 그림을 보기 어렵기 때문이죠.

사람 이름 표기

등장인물이 많은 에세이나 참고 문헌이 많은 책에서는 이름을 어떻게 표기할 지도 큰 고민입니다. 우리 주변에 철수와 영희가 몇 명 없듯이 외국에도 마이클과 매리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요령 몇 개를 알려드립니다.

- 다른 번역서_ 같은 이름의 저자를 다른 번역서에서는 어떻게 표기했는지 확인하세요.
- 구글/위키백과/영한사전_ 유명인이라면 이미 누군가가 언급했을 것입니다. 사전에 오른 이름도 제법 됩니다.
- 강연/인터뷰 영상_ 미디어가 발달한 시대입니다. 유튜브 등에서 직접 듣고 받아 적는 게 가장 정확할 때가 많습니다.

2015. 9. 17

기획·글 이복연 (한빛미디어 IT 출판부) / 그림 킵고잉